

#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갈등에 대한 확장적 논의 : 제3의 성을 포함하는 확장의 필요성

202421557 문화콘텐츠학과 노준호

## < 목차 >

### I 들어가는 글

### II 제3의 성의 현주소

1. 제3의 성 개념에 대한 이해
2. 제3의 성과 관련된 사례분석 및 논의 검토
  - ① 현실사회 속 관련 사례 분석과 법적 조치
  - ② 관련 문화콘텐츠 사례 분석과 대중의 사회적 반응

### III 기존 젠더갈등의 의미와, 젠더갈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1. 기존 젠더갈등의 이분법적 정의
2. 젠더갈등이 이분법적 정의를 벗어나, 제3의 성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 IV 나오는 글 : 제3의 성을 포함하여 재구성하는 젠더 갈등

### V 참고 문헌

## I 들어가는 글

‘네가 너인 게(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최근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끈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중, 인물 ‘재희’의 대사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하여 당연한 말을 한다고 느낄수도 있겠지만, ‘재희’와 대화하는 ‘홍수’의 입장에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홍수’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다. 차별과 편견따위 존재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홍수의 친구 ‘재희’였기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며, 극중에서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받았던 ‘홍수’에게 있어, ‘재희’의 한마디는 큰 위로로 다가갔을 것이다. 반면, ‘재희’를 제외한 영화속 대부분의 인물과 플롯은 현실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다운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약점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작 소설을 집필한 박상영 작가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결국 <대도시의 사랑법>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다만 그 사랑의 종류가 남녀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사랑을 넘어, 이른 바 ‘남사친/여사친’이라고 불리는 관계의 인간간의 사랑, 심지어는 동성애자의 사랑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며, 영화는 자연스레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젠더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영화가 퀴어적인 색채를 지닌 상업영화임을 고려해 보자면, 영화의 국내 누적 관객수인 86만명은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지 45개국에 수출되는 등<sup>2</sup> 상업적 성공과 더불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하와이국제영화제, 홍콩아시안영화제 등에도 초청받으며<sup>3</sup> 그 작품성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관련 뉴스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연예인 홍석천의 “몇십 년의 아픔이 한순간에 치유 받는 괴상한 경험을 한 것 같다.”라는 인터뷰 발

---

<sup>1</sup> 이다원, <박상영 작가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드라마 동시 공개, 행복해요”>, 《스포츠경향》, 2024.11.4.,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11041619003?pt=nv>(2024.11.13. 접속).

<sup>2</sup> 조연경, <글로벌 접수 ‘대도시의 사랑법’ 45개국 판매·영화제 출초청>, 《JTBCnews》, 2024.12.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19725>(2024.11.13. 접속).

<sup>3</sup> 한종욱, <‘김고은·노상현’ 대도시의 사랑법, 연일 글로벌 행보 ... 국내 성적은?>, 《이투데이》, 2024.10.2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1632>(2024.11.13. 접속).

언이다.<sup>4</sup> 우리는 이를 통하여 실제 성소수자들도 영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소수자를 제재로 사용한 영화가 성소수자들에게도 환영받고, 상업적으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성공하며 심지어는 그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영화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아름다운 해피 엔딩을 맞기 전, '흥수 엄마'가 '흥수'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다. '흥수 엄마'는 '흥수'와 '재희'가 동거하는 것을 알고 난 뒤, 둘이 교제중인 것으로 오해하여 '흥수야, 나는 네 병 나을 줄 알았어.'라는 말을 내뱉는다. 동성애를 질병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질병처럼 여기는 것은 단순 스크린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박의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성적 취향을 정신질환으로 간주하는 등 이성적인 성적 지향만을 정상인으로 바라보고, 동성적인 취향을 가진 이는 비정상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sup>5</sup> 이 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 발표된 김하영의 연구에서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비판을 받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sup>6</sup> 이어 2019년에 박미란은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일마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분석했다.<sup>7</sup>

2010년대 초부터 이어진 연구들은 아주 최근의 사례까지 이어지는데, 미국의 유명 팝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지난 2023년 그녀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커밍아웃을 감행하였다. 당시 그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팔로워 수는 1억 1030만 420명에 달했으나, 커밍아웃 이후 한 달 새에 그녀의 팔로워는 1억 1020만 603명으로 10만 명 가량이 팔로우를 취소했고, 그 수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8</sup>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다

---

<sup>4</sup> 박채아, <"가슴에 팍!" 홍석천이 눈물 흘린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명대사: 듣고 나니 누구에게나 코끝이 찡~할 말이다>, 《HUFFPOST》, 2024.12.7.,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41> (2024.11.14. 접속).

<sup>5</sup> 박의주,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sup>6</sup> 김하영,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 논집, 28(2), 2018.

<sup>7</sup> 박미란, 「성소수자(LGBT)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sup>8</sup> 정윤정, <빌리 아일리시, 커밍아웃 후 팔로워 10만명 잃었다 [할리웃통신]>, 《TV REPORT》, 2023.12.4.,

양한 연구 결과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동성애자를 배우자/친구/직장동료/이웃 등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답한 이들이 57%에 이르렀다.<sup>9</sup>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성적 지향성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소수자가 겪을 갈등과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 편, 리서치 기업 입소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응답자 중 6~7%에 달하는 인원이 동성애자/양성애자/범성애자/무성애자의 성소수자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sup>10</sup> <미국 내 성인 LGBT 인구> 보고서를 보면, 미 성인의 5.5% 이상이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단순한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20명이 모인 집단 중에서 1명은 성소수자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절대 적은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가진 비정상인으로 취급받는 이가 20명 중 1명 꼴로 존재하는데, 커밍아웃 시 찍히게 될 낙인이 두려워, 모든 스트레스를 홀로 감내하고 있는 꼴이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저자는 지금까지 젠더갈등이 양성간의 갈등만을 다뤘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성소수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니 말이다. 남녀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그 남녀라는 틀에서조차 벗어나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

<https://tvreport.co.kr/world/article/775495/?organic=1>(2024.11.13. 접속).

<sup>9</sup> 민경하, <소수자에 냉정한 사회... 국민 10명 중 6명 "동성애자 받아들일 수 없어">, 《뉴스핌》, 2021.3.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25000620>(2024.11.14. 접속).

<sup>10</sup>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 《입소스》, 2023. 8. 16., <https://www.ipsos.com/ko-kr/%ED%95%9C%EA%B5%AD-%EC%84%B1%EC%86%8C%EC%88%98%EC%9E%90-%EB%B9%84%EC%9C%A8-%EC%9D%B4%EB%A5%BC-%EB%B0%94%EB%9D%BC%EB%B3%B4%EB%8A%94-%EC%8B%9C%EB%AF%BC%EB%93%A4%EC%9D%98-%EC%83%9D%EA%B0%81>(2024.11.13. 접속).

<sup>11</sup> 노석주, <美 동성애자 비율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D.C...100명 중 14명[노석조의 외설]>, 《조선일보》, 2024.4.2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12/LQDMCG7XDBEVPINBQIMBJ4QSD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12/LQDMCG7XDBEVPINBQIMBJ4QSD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4.11.13. 접속).

이에, 본 소논문은 지금까지 남녀간의 이분법적인 갈등만을 의미했던 '젠더 갈등'의 의미를, 제3의 성을 지니는 성소수자들이 사회를 살아가며 직면하게 될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해당 소논문이 직접적으로 젠더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젠더 갈등의 범위를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시킨다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젠더 갈등에 대한 논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제3의 성의 현주소

지금까지 인류의 성별 구분은 크게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반해, '제3의 성'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전통적/이분법적인 성별의 구분을 벗어난 사회적인 성별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이 한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내가 정체화하는 성별은 다를 수 있다."라는 발언<sup>12</sup>이 제3의 성이라는 새로운 성별 지평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해당 글에서는, 지금까지 통용해왔던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남성', '여성'이 아닌, 사회적인 자아 즉 젠더로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제3의 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자 한다.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분 즉,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과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에서 벗어난 모든 케이스를 '제3의 성'이라고 칭하기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해당 부분에서는, 젠더 갈등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리를 펼치기 전, 제3의 성 개념 자체에 대해 살펴본 후, 현실 세계와 문화콘텐츠 내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 1. 제3의 성 개념에 대한 이해

성정숙·이나영의 연구에 따르면, 제3의 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생물학적

---

<sup>12</sup> 서혜미, <'제3의성' '성별X'... 남녀 이분법 벗어난 성별 표기는 '뉴노멀'>, 《한겨레》, 2021.10.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2024.11.15. 접속).

성', '성 지향성', '성 정체성'의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생물학적 성은 태어날 때 생식기나 염색체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성 지향성은 성적/감정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대상을, 성 정체성은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흔한 형태인 LGBT의 사례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통해 구체적인 케이스를 나눠보겠다.

LGBT의 구분 기준		성 정체성	
		남성	여성
성 지향성	남성	게이	A
	여성	B	레즈비언
	무관	바이섹슈얼	

해당 표와 같이, 본인의 성 정체성이 남성인데 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남성이라면 '게이', 정체성이 여성인데 지향성 또한 여성이라면 '레즈비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 둘의 경우가 바로 동성애자인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끌림을 느낀다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고 볼 수 있다.

A케이스와 B케이스는 생물학적 성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성을 파악할 수 있다. A케이스인데 생물학적인 성이 성 정체성과 동일한 여성이라면, 제3의 성이 아닌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인데 본인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에 대해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트랜스젠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트랜스젠더'라는 오해 또한 존재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인데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느끼며 남성에게 성 지향성을 느끼는 앞서 언급한 경우 또한 단순히 게이가 아닌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간성(intersex)'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가지는 사람이다.<sup>14</sup> 두 종류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XX염색

<sup>13</sup> 성정숙·이나영,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과 인식론적 전망 :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가능성」, 사회복지연구, 41(4), 2010.

<sup>14</sup> <제3의 성: 독일 올해부터 유럽국가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BBC NEWS 코리아》,

체와 XY염색체를 모두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간성은 성 정체성과는 별개의 특성으로,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 여성, 간성의 3종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UN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7%가 간성에 해당한다고 한다.<sup>15</sup>

이렇게 체계적인 구분이 있고, 구분에 따른 이름이 붙여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3의 성이 최근부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시간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케네스 도버는 그의 저서 『그리스의 동성애』를 통해, 고대 그리스가 동성애의 성지였으며 이는 곧 엘리트의 의무이기도 했음을 밝힌다.<sup>16</sup> 특히 성인 남성과 청소년 간의 연애가 장려되었는데, 이는 해당 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형태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엘리트 성인 남성이 청소년과 사랑을 나누며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국가관 및 다양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중부 테베에는 '신성부대'라고 이름 붙여진 남성 커플 150쌍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로 전해진다.<sup>17</sup> 심지어는 그리스의 패권국인 스파르타조차 이 신성부대에 완패하고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인끼리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투지에 있다는 웃지 못할 사연 또한 전해내려온다.

시선을 조금 확장하여, 비인간종을 살펴보자. 지난 2023년 우리 나라에는 브루스 배게밀이 집필한 동물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도서 『생물학적 풍요』가 번역되어 들어왔다. 해당 도서는 450여 종의 동물 동성애 사례 중 190여 종의 포유류 및 조류 사례를 포함한 일부 동물이 행하는 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 등의 목록을 백과사전처럼 정리하여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730921>(2024.11.15. 접속).

<sup>15</sup> 김유민, <여성과 남성이 한 몸에...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 《서울신문》, 2024.8.5., [https://www.seoul.co.kr/news/life/health-news/2024/08/05/20240805500014?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life/health-news/2024/08/05/20240805500014?wlog_tag3=naver)(2024.12.21. 접속).

<sup>16</sup> 강영운, <아저씨와 소년 연애 '이상적'으로 본 그리스>, 《매일경제》, 2024.1.12., <https://www.mk.co.kr/economy/view/2024/30289>(2024.11.15. 접속).

<sup>17</sup> 황대일, <'그리스 최강' 스파르타, 동성애 군대에 져 멸망했다>, 《연합뉴스》, 2017.3.28.,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7065900797>(2024.11.15. 접속).

보여준다.<sup>18</sup>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이 제3의 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라는 많은 이들의 생각에 반기를 든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어쩌면 21세기보다 기원전이, 인간 사회보다 동물 사회가 더 자연스러운 사회일지도 모르겠다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 편, 동성애자 유튜브로 활동하는 한 채널에는 스스로가 동성애자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짝막한 인터뷰 영상이 존재한다.<sup>19</sup> 그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스스로가 동성애자이고 싶지 않아하는 이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보통의 남성이 여성이 좋아하듯이, 본인이 남성으로 태어났음에도 자연스레 남성에게 호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앞서 다룬 동물 사회에서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같은 제3의 성과 같은 새로운 성적 지향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화의 일부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게 된다.

결국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고, 더불어 그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에 긴 분량을 들여 제3의 성에 대한 개괄을 진행하였다. 이젠, 제3의 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현실은 다시 반영하는 문화콘텐츠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제3의 성과 관련된 사례분석 및 논의 검토

### ① 현실사회 속 관련 사례 분석과 법적 조치

국내에서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알리는 퀴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최초 개최한 이후, 국내 각지를 떠돌며 해마다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소수자 단체와 일부 진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행사에서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밝

---

<sup>18</sup> 엄민용, <인간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변곡점이 된 '생물학적 풍요'>, 《스포츠경향》, 2023.9.2.,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309022230003?pt=nv> (2024.11.15. 접속).

<sup>19</sup> <https://www.youtube.com/shorts/OngJ6V1GRKc>



히는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올해 행사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지만, 종종 두 단체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한다.<sup>20</sup>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조항 또한 존재한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적/사회적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인데,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유, 여러 반대 의견들로 인해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sup>21</sup> 차이의 내용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 다양하며 당연히 성적 지향성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의 양식을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공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은 공공기관 중 인권위가 최초라고 한다. 다양한 성 소수자들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sup>22</sup>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외대 성평등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 '제3의 성'과 '대답하기 싫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남녀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났다.<sup>23</sup>

해외는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간성'의 경우, 성별을 기록할 때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사의 진단서만 있다면 국가 시스템에 '간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변화하였으며, 오스트리아나 호주 등의 여러 나라에서도 간성 시민들을 위한 조치를 마련

---

<sup>20</sup> 김민표, <성 소수자 퀴어축제 인천서 열려... 길 건너 반대 집회도>, 《SBS NEWS 비디오머그》, 2024. 11.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7781&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7781&plink=ORI&cooper=NAVER)(2024.11.14. 접속).

<sup>21</sup>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5878&cid=42107&categoryId=42107>(2024.11.14. 접속).

<sup>22</sup> 이보라,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경향신문》, 2019.3.2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291448001>(2024.11.14. 접속).

<sup>23</sup> 서혜미, <'제3의성' '성별 X'... 남녀 이분법 벗어난 성별 표기는 '뉴노멀'>, 《한겨레》, 2021.10.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2024.11.14. 접속).

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sup>24</sup>

미국 정부는 여권에 변화를 줬는데, 지난 2022년부터 여권 신청서에 '젠더 X'를 추가하였다.<sup>25</sup> 이는 제3의 성에 해당하며, 미지정 혹은 다른 성 정체성으로 정의된다고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의 의도를 밝혔으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sup>26</sup>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받아, 중남미에서도 '제3의 성' 표기를 공문서에서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2022년 칠레 정부는 성별 표시란에 'X'가 인쇄된 신분증을 한 시민에게 발급한 바 있다.<sup>27</sup>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2021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 뉴질랜드, 독일, 호주, 네팔 등 세계 각국에서 공문서에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3의 성을 공문서에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나 중남미에 비해 보수적인 국가적인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 ② 관련 문화콘텐츠 사례 분석과 대중의 사회적 반응

현실 사회에서 제3의 성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인정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사회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건, 바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소비하는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는 생활양식이나 이야기

---

<sup>24</sup> <제3의 성: 독일 올해부터 유럽국가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730921> (2024.11.15. 접속).

<sup>25</sup> 이정화,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미국 여권에 표기된다>, 《SBS NEWS 비디오머그》, 2022.4.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8006](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8006) (2024.11.14. 접속).

<sup>26</sup> 위의 글

<sup>27</sup> 이재림, <중남미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 인정 잇따라... 남녀 대신 'X'>, 《연합뉴스》, 2022.10.17.,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01900087> (2024.11.14. 접속).

등의 문화적인 요소에 창의력과 기술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만들어지기에,<sup>28</sup> 우리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OTT플랫폼과 웹툰·웹소설계에서는 음지에만 머물렀던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sup>29</sup> 한 뉴스기사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본 소논문의 바로 앞 부분에서 다룬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현실사회 속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sup>30</sup> 앞선 장에서는 제3의 성에 대한 국내외 법적 움직임에 집중해보았다면, 해당 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문화콘텐츠를 살펴보고 대중의 사회적 반응을 살피고자 한다. 제3의 성과 관련된 예능, 영화, 뮤지컬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며, 다루는 작품들은 필자가 직접 관람한 성소수자들을 다룬 여러 콘텐츠들 중 제3의 성에 관한 대중의 반응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났다고 느껴지는 몇 작품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지난 2022년 WAVE에서 공개한 버라이어티 쇼 <남의 연애>와 <메리퀴어>는 한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남의 연애>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연애프로그램과 동일한 포맷이지만 등장인물들이 모두 남성이었고, <메리퀴어>는 실제 성소수자 커플들의 일상과 심지어는 결혼 시도 내용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TIME에서는 이 쇼를 만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을 전한 바 있는 반면,<sup>31</sup>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WAVE 사옥 앞에서 해당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동성애를 미화한다며 거세게 비방하였고, 동성애를 조장하여 다음 세대를 망치려 든다며 날선 비판을 마다치 않았다.<sup>32</sup>

한 편,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동성애자가 등장한다. 그들은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하거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병'이라

<sup>28</sup> 문화콘텐츠학입문, <제2장 한국발 문화콘텐츠학의 태동과 학문체제 재편의 필요성> 강의노트 中

<sup>29</sup> 나예진, <동성애 콘텐츠, 메이저 장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세춘추》, 2024.3.5.,

<sup>30</sup> 나예진, <동성애 콘텐츠, 메이저 장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세춘추》, 2024.3.5.,

<sup>31</sup> 조용준, <美 TIME'메리 퀴어' & '남의 연애' 집중 조명... "퀴어 인식 제고에 기여" 소개>, 《뉴스핌》, 2022.9.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06000781> (2024.11.15. 접속).

<sup>32</sup> 황효이, <""메리퀴어' 동성애 콘텐츠가 내 자녀 인생 망쳐" 규탄 시위 어쩌나>, 《스포츠경향》, 2022.8.6.,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208061620003?pt=nv> (2024.11.15. 접속).

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커밍아웃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응 또한 엇갈리는데,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내용 모르고 봤는데 오히려 감동으로', '따뜻해요 마음 속 깊이 어루만져 주는 느낌의 영화.. 너무 좋음' 등의 호평을 남겼으나, 일부 관람객은 '게이들이 평점 달았네 속았다' 라거나 '지들이 문제아면서 세상이 문제라고 소리치는 멍청한 이야기'라는 관람평을 달기도 하였다. 이는 성소수자라는 소재를 차용한 영화의 플롯 문제도 있겠지만, 포스터 등에서 영화에 퀴어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듯이 포장하였기에 이성간의 로맨스 영화로 착각하여 관람한 관객층으로부터 발생한 반응으로도 보여진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 대중들도, 무대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킹키부츠>나 <베어 더 뮤지컬>과 같은 제3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뮤지컬의 이야기이다. <킹키부츠>는 생물학적인 남성임에도 여성의 분장을 하고 높은 하이힐을 신는 드랙퀸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11월 1주차 국내 뮤지컬 트렌드 지수 1위를 경신하는 등 흥행을 이어갔다.<sup>33</sup> <베어 더 뮤지컬>은 보수적인 환경속에서 동성애에 눈을 뜬 한 커플이 겪는 커밍아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공연한 이후로, 2025년에 예정된 공연까지 총 7차례나 공연되는 등 꽤나 선호되는 듯한 형세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서사'가 부여된 콘텐츠의 경우, 항상 제3의 성을 지닌 인물이 고통을 받는 플롯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퀴어 동아리라는 이유만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아웃팅을 당하는 일이, <킹키부츠>에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면 호소하는 'Hold Me In Your Heart'라는 넘버가, <베어 더 뮤지컬>에서는 커밍아웃 하게 되면 무너져버릴 이미지에 대한 걱정 및 유사한 맥락에서의 스트레스에 의한 죽음까지 결국 소수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플롯이 꼭 등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부 대중들은 그러한 비극적인 서사에 공감하지 못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방하고 악플을 게시하는 모습이 관찰되나, 제3의 성을 다룬 콘텐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sup>34</sup> 대중들이 성소수자들 자체에 직접적인 감정 이입을 하는 단계까

---

<sup>33</sup> 최나리, <[문화차트] 11월 1주차 국내 공연 뮤지컬 트렌드지수 1위 킹키부츠>, 《HAND MAKER》, 2024.11.8., <https://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40>(2024.11.15. 접속).

<sup>34</sup> 나예진, <동성애 콘텐츠, 메이저 장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세춘추》, 2024.3.5.,

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다루는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비극적이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서사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Ⅲ 기존 젠더 갈등의 의미와, 젠더갈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3의 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젠 젠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젠더 갈등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 1. 기존 젠더 갈등의 이분법적 정의

젠더 갈등이란 보이는 것과 같이, 젠더와 갈등이 합쳐진 말이다. 이 중에서도, '젠더'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반한 성이 아닌 사회학적인 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역할을 말한다. 단어 자체가 남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sup>35</sup>

결국 '젠더 갈등'의 의미는 사회학적인 성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간단히 그 역사를 되짚으면, 김기동·정다빈·이재묵은 가부장적인 성격을 띄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보았다.<sup>36</sup> 이재경에 따르면, 그렇게 남성 중심적인 형태를 가져오던 젠더 갈등이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제도, 적극적 우대조치, 성매매와 성폭력, 일과 가족 갈등 등의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논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sup>37</sup>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쟁점에 한정되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

<sup>35</sup>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sup>36</sup> 김기동·정다빈·이재묵,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치학회, 55(4), 2021.

<sup>37</sup> 이재경, 「한국사회 젠더 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법학원, 134(2), 2013.

## 2. 젠더갈등이 이분법적 정의를 벗어나, 제3의 성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필자는 남녀간의 이분법적인 갈등에 대한 것을 다뤘은 '젠더 갈등'에 제3의 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대체 왜 제3의 성을 지닌 이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제3의 성에 대한 논의가 '젠더 갈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사고 과정을 밝혀, 젠더 갈등에 성소수자들이 겪는 갈등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젠더'라는 단어의 의미로 돌아가보자. '젠더'의 뜻은 '사회학적인 성'이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이 한 개인에게 정해지는 반면,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역할을 말하기에 사회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데에는 그 동안 남성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아왔던 여성들이라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sup>38</sup>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님에도 남성이 아니라는 '다름'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이지 않겠는가? 결국 '젠더'라는 단어에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3의 성을 가진 소수자들 역시, 그들이 스스로 원하여 제3의 성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Ⅱ-1에서 다룬 한 인터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그들이 원하여 게이이고 레즈비언이 된 것이 아니다. 태어나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했던 것이다.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과거 여성들이 남성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젠더'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젠더 갈등'에 제3의 성을 지닌 이들의 논의를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젠더로서 존재하며, 수많은 갈등을 겪고있는 갈등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도, 그들은 현실 세계속에서 많은 갈등과 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성소수자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는

---

<sup>38</sup>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동의했지만, 동시에 응답자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성 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는 아직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성 소수자들이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삶의 방식과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며(36.9%), 이들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고 답하였고(28.6%),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고(26%),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19.5%)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퀴어 페스티벌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표-2에서 잠시 다뤘듯이 퀴어 페스티벌을 하는 장소 주변에는 항상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린다. 올해처럼 순탄히 넘어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지난 해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는, 퍼레이드 대열에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난입하기도 하는 등<sup>39</sup> 혐오의 시선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뉴스기사에서는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폭력을 행사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러 온 일에 대해서 밝히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갈등은 가정 뿐 아니라, 학교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sup>40</sup>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는 탈가정 경험 이 있거나 탈가정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 중 65%에 달하는 비율이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지향성 전환 치료 시도,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성폭력 중 최소 1개 이상의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sup>41</sup>

갈등은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직장으로도까지 이어진다. 쿠팡물류센터에 입학한 한 계약직 사원은 그녀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아웃팅되어, 쿠팡 사측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측과 노동부는 아웃팅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sup>42</sup> 그녀는 결국, 어떤 관계로든 동성애자를 자신의 주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달하는 사회<sup>43</sup>에서, 낙인 찍힌 '동성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

<sup>39</sup> 김수연, <인천서 성 소수자 축제 열려...기독교계에선 동성애 반대 맞불 집회>, 《한국일보추》

<sup>40</sup>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871](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871)

<sup>41</sup> <https://www.bbc.com/korean/news-57620792>

<sup>42</sup>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sup>43</sup> 민경하, <소수자에 냉정한 사회... 국민 10명 중 6명 "동성애자 받아들일 수 없어">, 《뉴스핌》, 2021.3.25.,

이다.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내 따돌림이 과연 갈등과 불평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젠더'라는 단어는 모든 인간이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탄생한 것이다. 이 '젠더'에 제3의 성을 지닌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남성과 여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제3의 성은 극히 일부이기에, 그들의 권리 신장보단 일반 남성과 여성의 권리 신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기엔, 20명 중 1명이라는 성소수자의 통계 수치가 그들을 마냥 일부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제3의 성을 지닌 성소수자들을 더이상 막연히 소수라고 부르기엔 문제가 있다는 점, 이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차별받으며 갈등과 불평등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젠더'라는 말 자체가 인류의 평등을 위해 탄생한 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이 젠더 갈등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은 어떤 형태를 지닌 인간이든, 본래의 모습 그 자체로 차별받아서 안되며 평등해야 한다는 맥락의 갈등이자 해결과정이기 때문이다. 젠더 갈등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을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제3의 성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이며, 이는 앞으로 다양화될 사회에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 **IV 나오는 글 : 제3의 성을 포함하여 재구성하는 젠더 갈등**

지금까지 '제3의 성을 포함하여 젠더 갈등을 재구성 해야할 필요성'을 주제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시작하여, 제3의 성에 대한 이해 및 현재의 인식, 그리고 이들이 젠더갈등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해야 할 포용적인 젠더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았다. 주 논의 내용은 젠더에 대한 전통적이고 생물학적인 이분법적 사고



가 현대 사회가 담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3의 성을 지닌 이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제3의 성을 지닌 성소수자들을 젠더 갈등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3의 성에 대해 진행중인 법적 논의와 대중의 사회적 반응을 탐구하였고, 제3의 성에 대한 이해와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젠더는 생물학적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인 개념이다. 둘째, 제3의 성을 지닌 이들은 더이상 소수가 아니며, 이들을 위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다.

이어, 젠더 갈등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밝히며, 성소수자들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성소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랬다는 점을 되짚고, '젠더'는 본래 평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에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의 평등을 위해 제3의 성을 지닌 이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며,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평등에 대해 언급하여, 그들의 상황 또한 젠더 갈등에 포함되어야 마땅함을 주장하였다.

미래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젠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그러니 제3의 성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나답게 존재하는 것이 더이상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 말이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 이상의 젠더갈등은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에 따른 갈등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 또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자 하나의 젠더이며 사회적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학적인 성별 구분,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젠더 갈등 논의를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의 갈등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3의 성을 포함하여 재구성하는 젠더 갈등은 결국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인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다양하고, 다양을 포용하는 쪽으로 진화해왔기에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타협하는 것이 중요해질 앞으로의 사회를 고려해서도 말이다.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조그마한 발걸음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미래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V 참고 문헌

### 학술지 소재 / 학위 논문

박의주,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하영,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 논집, 28(2), 2018.

박미란, 「성소수자(LGBT)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성정숙·이나영,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과 인식론적 전망 :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가능성」, 사회복지연구, 41(4), 2010.

김기동·정다빈·이재묵,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치학회, 55(4), 2021.

이재경, 「한국사회 젠더 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법학원, 134(2), 2013.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5878&cid=42107&categoryId=42107>(2024.11.14. 접속).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온라인 신문 기사

이다원, <박상영 작가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드라마 동시 공개, 행복해요">, 《스포츠경향》, 2024.11.4.,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11041619003?pt=nv>(2024.11.13. 접속).

조연경, <글로벌 접수 '대도시의 사랑법' 45개국 판매·영화제 출초청>, 《JTBCnews》, 2024.12.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19725>(2024.11.13. 접속).

한종욱, <‘김고은·노상현’ 대도시의 사랑법, 연일 글로벌 행보 ... 국내 성적은?>, 《이투데이》, 2024.10.2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1632>(2024.11.13. 접속).

박채아, <“가슴에 팍!” 홍석천이 눈물 흘린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명대사: 듣고 나니 누구에게나 코끝이 찡~할 말이다>, 《HUFFPOST》, 2024.12.7.,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41>(2024.11.14. 접속).

정윤정, <빌리 아일리시, 커밍아웃 후 팔로워 10만명 잃었다 [할리웃통신]>, 《TV REPORT》, 2023.12.4., <https://tvreport.co.kr/world/article/775495/?organic=1>(2024.11.13. 접속).

민경하, <소수자에 냉정한 사회... 국민 10명 중 6명 “동성애자 받아들이 수 없어”>, 《뉴스핌》, 2021.3.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25000620>(2024.11.14. 접속).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 《입소스》, 2023. 8. 16., <https://www.ipsos.com/ko-kr/%ED%95%9C%EA%B5%AD-%EC%84%B1%EC%86%8C%EC%88%98%EC%9E%90-%EB%B9%84%EC%9C%A8-%EC%9D%B4%EB%A5%BC-%EB%B0%94%EB%9D%BC%EB%B3%B4%EB%8A%94-%EC%8B%9C%EB%AF%BC%EB%93%A4%EC%9D%98-%EC%83%9D%EA%B0%81>(2024.11.13. 접속).

노석주, <美 동성애자 비율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D.C...100명 중 14명[노석조의 외설]>, 《조선일보》, 2024.4.2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12/LQDMCG7XDBEVPINBQIMBJ4QSD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12/LQDMCG7XDBEVPINBQIMBJ4QSD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4.11.13. 접속).

서혜미, <‘제3의성’ ‘성별X’... 남녀 이분법 벗어난 성별 표기는 ‘뉴노멀’>, 《한겨레》, 2021.10.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2024.11.15. 접속).

<제3의 성: 독일 올해부터 유럽국가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730921>(2024.11.15. 접속).

김유민, <여성과 남성이 한 몸에...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 《서울신문》, 2024.8.5., [https://www.seoul.co.kr/news/life/health-news/2024/08/05/20240805500014?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life/health-news/2024/08/05/20240805500014?wlog_tag3=naver)(2024.12.21. 접속).

강영운, 〈아저씨와 소년 연애 '이상적'으로 본 그리스〉, 《매일경제》, 2024.1.12., <https://www.mk.co.kr/economy/view/2024/30289>(2024.11.15. 접속).

황대일, 〈'그리스 최강' 스파르타, 동성애 군대에 저 멸망했다〉, 《연합뉴스》, 2017.3.28.,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7065900797>(2024.11.15. 접속).

엄민용, 〈인간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변곡점이 된 '생물학적 풍요'〉, 《스포츠경향》, 2023.9.2.,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309022230003?pt=nv>(2024.11.15. 접속).

김민표, 〈성 소수자 퀴어축제 인천서 열려... 길 건너 반대 집회도〉, 《SBS NEWS 비디오머그》, 2024. 11.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7781&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7781&plink=ORI&cooper=NAVER)(2024.11.14. 접속).

이보라,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경향신문》, 2019.3.2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291448001>(2024.11.14. 접속).

서혜미, 〈'제3의성' '성별 X'... 남녀 이분법 벗어난 성별 표기는 '뉴노멀'〉, 《한겨레》, 2021.10.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44.html?_fr=mt2)(2024.11.14. 접속).

〈제3의 성: 독일 올해부터 유럽국가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730921>(2024.11.15. 접속).

이정화,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미국 여권에 표기된다〉, 《SBS NEWS 비디오머그》, 2022.4.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8006](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8006)(2024.11.14. 접속).

이재림, 〈중남미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 인정 잇따라... 남녀 대신 'X'〉, 《연합뉴스》, 2022.10.17.,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01900087>(2024.11.14. 접속).

나예진, 〈동성애 콘텐츠, 메이저 장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세춘추》, 2024.3.5.,

조용준, 〈美 TIME'메리 퀴어' & '남의 연애' 집중 조명... "퀴어 인식 제고에 기여" 소개〉, 《뉴스핌》, 2022.9.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06000781>(2024.11.15. 접속).

황효이, <“메리콰어” 동성애 콘텐츠가 내 자녀 인생 망쳐” 규탄 시위 어찌나>, 《스포츠경향》, 2022.8.6.,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208061620003?pt=nv>(2024.11.15. 접속).

최나리, <[문화차트] 11월 1주차 국내 공연 뮤지컬 트렌드시수 1위 킹키부츠>, 《HAND MAKER》, 2024.11.8.,  
<https://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40>(2024.11.15. 접속).

민경하, <소수자에 냉정한 사회... 국민 10명 중 6명 “동성애자 받아들일 수 없어”>, 《뉴스핌》, 2021.3.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25000620>(2024.11.14. 접속).

## 온라인 자료

문화콘텐츠학입문, <제2장 한국발 문화콘텐츠학의 태동과 학문체제 재편의 필요성> 강의노트 中

<https://www.youtube.com/shorts/OngJ6V1GRKc>